■여름방학 생태체험 프로그램

날짜	프로그램
8월 16~22일	제 4회 섬진강 대탐사
8월 14일	생태체험 그린투어 2차
7월 30일	생태체험 그린투어 1차
7월 30일	여름방학 환경 생태 캠프
7월 28~29일	자연생태학교 여름 캠프
7월 27일~31일	제3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

붉은 박쥐·수달은 어떻게 살까

영산강환경청 여름방학 생태체험 투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현장학습이 진행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용철)은 30일 함평군 대동면 고봉산 붉은 박쥐 서식지를 탐방하는 '생태체험 그린투어'를 진행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고봉산에서 붉은박쥐의 생태와 번식, 분포를 이해하고 대동댐 지역의 희귀조류도 관찰한다. 또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조개·게 잡기 등 갯벌체험을 한 후 자연생태공원에서 희귀 곤충을 관람하게 된다.

오는 8월14일에는 2차 그린투어가 진행되며 섬진강 수달서식지를 탐방하게 된다. 섬진강 생태경관보존지역을 둘러보며 다양한 생물들의 삶을 관찰한 후 경남 하동군 송림숲을 탐방하게 된다.

30일에는 '여름방학 환경생태캠프'가 진행된다. 화순수도센터에서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동복천에서 생태체험을 진행한다. 이후 수서곤충 관찰, 식물 채집을 하게 되며 관찰보고서를 만든 후 '우리들이 만든 곤충도감'을 제작해 배포하게 된다.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는 지난 27일부터 100여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영산강 본류로 흘러드는 샛강의 실태를 답사하고, 각 구간의 수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섬진강 대탐사'는 오는 8월16일부터 열린다. 가족단위도 접수할 수 있는 이 탐사는 섬진강의 발원지인 데미샘에서 출발해 뜬봉샘 탐사, 풍혈냉천·방수리·시선대·옥정호 탐사, 필봉농악 따라잡기 등 행사를 하게 된다.

'자연생태학교 여름캠프'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영산강에서 황포돛배 체험은 물론 영산포 등대, 나주대교·천연염색·용연계곡·지석강 샛강·광주천 생태체험 등 전문가들과 함께 곳곳을 둘러봤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장학습기회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여름방학을 이용, 다채로운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환경파수꾼이 될 어린이들이 실내교육에서 벗어나 심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국립공원서 텐트 빌려 줍니다

지리산 달궁야영장 등 5곳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지리산 달궁야영장, 덕유산 덕유대야영장 등 5개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텐트 및 매트 대여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가격은 1박을 기준으로 소형 5천원, 중형 8천 원이며 매트도 한 장에 1천원씩에 빌려준다.

이들 야영장에는 취사장과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이용이 편리하며 국립공원사무소에 전화나 방문해 예약할 수 있다.

문의는 지리산북부사무소(063-625-8911), 덕유산사무소(063-322-3174), 오대산사무소(033-332-6417), 설악산사무소(033-636-7700), 월악산사무소(043-653-3250).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초중고생 100여명 참여 '2008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삼각망 걷어 올리자 악취 진동

"오염 이토록 심할 줄 몰랐어요"

선박·자전거 이용 수질 확인, 생태지도 만들기 동참

샛강 살리기 홍보·인근 주민과 생태복원 토론회도

"영산강에 막상 와서 심하게 오염된 모습을 보니 '우리의 강'을 더욱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영산강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2008년 영산강 대탐사'가 '영산강을 생명의 강으로'라는 주제로 24일부터 닷새간 영산강 유역에서 열리고 있다.

초·중·고교생 100여명으로 구성된 탐사단은 영산강 유역을 걸어보거나 선박, 자전거 등을 이용해 수질을 확인하고 하천 탐사, 수질측정 및 정화활동, 생태지도 만들기 등에 나선다. 특히 영산강 수질 개선에 필수적인 샛강과 도랑 살리기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인근 주민들과 함께 생태 복원 방안 토론회도 갖는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8일 오후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에서는 100여명의 청소년 탐사단이 영산강 둔치를 따라 걷고 있었다. 따가운 햇볕을 모자로 피해보려 하지만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m 이상 자란 풀을 헤쳐가며 청소년들은 영산강 수질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영산강 본류 주변에 쌀 농사 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만든 불법 경작지만 2천16만㎡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농약과 방치된 쓰레기 더미들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수십 년간 영산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5.5㎞가량 이어진 영산강 둑길을 걸은 뒤 청소년들은 주운 돌멩이로 강변에 돌탑을 쌓았다. 영산강을 맑게 만들겠다는 의지와 깨끗한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차곡차곡 올려놓은 돌들이 금세 탑을 이뤘다.

정의관(16·금구중 3년)군은 "사진이나 TV 등을 통해 영산강이 많이 오염돼있다는 설명을 듣긴 했지만 직접 현장을 봐야만 실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했다"며 "광주·전남 시민들은 '영산강이 더럽다'고만 알고 있지 정화하려는 노력은 부족다. 집에 돌아가면 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도보답사를 마친 청소년들은 인근 나루터에서 배를 탄 후 1시간 30분 동안 영산강의 오염실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특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삼각망을 걷을 때는 악취 때문에 코를 부여잡거나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한 개당 1.5t에 달하는 불법 삼각망이 영산강에 수천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곳에 물고기가 걸려서 죽는 것은 물론 오랫동안 방치돼 썩으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물고기들이 알을 낳는 둔치 쪽에 주로 설치돼 있어 서식환경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수질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배에서 내린 청소년들은 한 목소리로 오염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민우(15·문흥중 2년)군은 "지난해에도 참석했지만 특히 하구둑 주변의 상태는 여전히 최악"이라며 "광주·전남지역의 젖줄인 만큼 수질개선 사업에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지난 28일 오후 영산강의 오염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배를 탄 청소년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샥스핀 팔지 마세요"

미국·대만 환경보호단체들 대만 음식점 메뉴서 제외 요구

미국과 대만의 환경보호단체들은 대만 관영 음식점에서 상어지느러미 요리인 '샥스핀'을 팔지 말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대만 일간 연합보(聯合報)가 최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생태환경 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과 대만의 '환경과동물협회(EAST)'는 최근 대만 내각과 농업위원회, 국립고궁박물관에 보낸 청원서를 통해 국립고궁박물관 산하 국영 연회장인 '비단궁' 메뉴에서 샥스핀 요리를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 주최의 연회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지난 6월 수도 타이베이(臺北)에서 문을 연 비단궁은 현재 제공하는 코스 요리 9가지 가운데 8가지 메뉴에 샥스핀 요리를 포함해 제공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대만은 현재 매년 600여t에 이르는 상어지느러미를 소비하는 샥스핀 애호국이다.

EAST의 주쩡훙(朱增宏) 대표는 "비단궁에서 상어지느러미를 내놓는 것은 대만의 국제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샥스핀 요리를 먹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및 생태보호 단체들은 샥스핀 반대의 명분으로 상어지느러미를 채취하는 과정이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이 요리가 상어의 남획을 조장해 해양 생태를 해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술만 먹고 사는 동물 있다

말레이시아 새깃꼬리투파이

모든 영장류의 마지막 공동조상과 매우 비슷한 말레이시아의 포유동물이 술을 주식으로 삼으면서도 취하지 않고 멀쩡하게 행동해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보도했다.

'새깃꼬리투파이'(학명 Ptilocerus lowii)라는 이 동물은 나무 위에서 살며 베르탐야자의 꽃봉오리에 담긴 발효된 꿀을 주식으로 삼는데 이 꿀의 알코올 농도는 3.8%로 자연에 존재하는 먹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맥주만 먹고 사는 셈이다.

박쥐나 새, 사람 등 일부 다른 동물들도 때로 발효 음료를 마시긴 하지만 새깃꼬리투파이는 종일 이런 알코올 음료만 먹고 산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 연구진은 이들이 발효주를 마시는 장면을 정기적으로 촬영하고 이들의 몸에 태그를 부착해 움직임을 추적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같은 양의 술을 마신 사람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미국립과학원회보(PNAS)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합뉴스